



(주)우성사료

‘축산인 세무회계 세미나’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축산경영인을 대상으로 ‘축산인 세무회계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25일 제1사업본부(논산공장) 주관으로 전주 소재 썬플라워 컨벤션 홀에서 충청지역과 호남지역 축산경영인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본 행사를 주관한 이진선 이사(제1사업본부장/논산공장)는 “옥수수 등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 일선에서 일하는 축산경영인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축산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 행사를 개최했다는 취지를 덧붙였다.

강의를 담당한 대한회계법인 송재현 세무사는 “실제로 축산업의 전업화와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장의 규모화에 맞는 세무회계의 수준은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1,000여 농가의 세무대행 실무를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강의를 실시했다.

본 행사에 참석한 한 축산경영인은 그 동안 농장의 생산성에만 치중해 왔으나 효과적인 절세방안 또한 농장의 수익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유익한 세미나가 지속되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국내 최초 레시틴 함유 요구르트 출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웰빙’ 열풍이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가족들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주부의 손길에서 웰빙 식단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란에 관해 1등 품질로 자부심을 지켜온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레시틴 요구르트 ‘오늘아침 레뜨레’를 개발, 출시했다.

‘오늘아침 레뜨레’는 최대 유기농 단지 충남 홍성의 평촌목장에서 짜낸 지 30분 이내의 1등급 원유와 복합 기능성 ABT-5 유산균과 두뇌활성화 및 혈액순환에 좋은 레시틴이 첨가된 최고급 목장 수

제 요구르트이다.

요구르트는 올리브, 양배추와 함께 3대 장수식품이며,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아토피 치료, 혈류개선, 항암기능 및 면역력 강화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레시틴의 콜린성분은 뇌 신경전달물질을 늘려줌으로써 기억력·집중력·학습력을 증대시켜주고, 노화방지 및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다.

트루라이프 식품사업본부 정삼수 팀장은 “오늘아침 레뜨레는 주문된 수량만 한정 생산하고, 생산된 바로 그 다음날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드리기 때문에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건강 요구르트”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보증할 수 있는 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아침 레뜨레’의 가격은 500g에 4,800원이다.

‘책임경영 컨설팅 전진대회’ 진행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인천시 강화군 소재 사각하늘펜션에서 ‘책임경영 컨설팅 전진대회’를 진행했다.

컨설턴트(Consultant)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전진대회는 컨설팅 가치창출 활동의 현황을 공유 및 토론하고, 컨설팅 활동 시 나타나는 상황을 Role Playing 형식으로 재연함으로써 컨설턴트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트루라이프의 컨설턴트는 단순한 사료판매에서 탈피하여 농장을 직접 컨설팅함으로써 보증할 수 있는 식품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장의 경영전반을 개선해주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책임경영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 컨설팅 관련 문의 : (032)527-6953

사내 커뮤니케이션지 ‘True People’ 개편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의 신바람 나는 대화창구인 커뮤니케이션지 ‘True People’이 개편됐다.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구성원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2007년 5월 창간된 ‘True People’은 지면 및 대상을 확대해 2008년 2월 새롭게 선보였다.

‘True People’은 회사 소식을 전달하는 ‘트루라이프 뉴스’와, 오늘먹는계란 및 오늘아침 레뜨레를

활용한 이색요리 등을 제공하는 '웰빙이야기', 열정적인 웰빙파트너를 선정하여 인터뷰하는 '이번 호 웰빙파트너', 로열티 고객을 취재하는 '트루라이프 마니아'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팀 남민정 팀장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 비전과 이념에 어울리는 커뮤니케이션 선지를 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들과 고객들이 읽고 싶고 기다려지는 커뮤니케이션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격월로 발행되는 커뮤니케이션지 'True People'은 트루라이프의 슬로건인 True Food, True Life에 걸맞게 진실하고 참된 삶을 추구하는 트루라이프 구성원들을 의미하며 직원 뿐 아니라 웰빙파트너와 일부 로열티 고객에게도 배포된다.

- 근무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사무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개별통보)
- 모집기간 : 2008년 3월 21일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E-mail 접수
- 서류제출 :
 - 우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8 신성빌딩 501호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총무부
 - E-mail : wjlee@dsmbio.com
- 문의사항 : (02)553-1104(총무부, 학술개발부)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사원모집

(주)대성미생물연구소(대표이사 조항원)에서는 학술개발부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주)대성미생물연구소는 코스닥상장기업으로 1966년 창립되어 KVGMP시설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양질의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모집내역

근무부서	인원	응시자격	비고
학술개발부	남, 여 0명	약학, 수의, 축산분야 4년제 대졸이상	신입 및 경력사원

대한사료공업(주)

'2008 영업전진대회' 개최




대한사료공업(주)(대표이사 김덕명)는 지난 1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이천 생산성본부 연수원에서 '2008 영업전진대회'를 실시했다.

올해로 64회기를 맞는 대한사료는 이번 영업전진대회를 통해 전년도를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종업원의 전략적 사고

능력 배양 및 사기증진을 위해 실시했다.

이번 영업전진대회에서 이종길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업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재 당면해 있는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시장 점유율 강화,

둘째, 수익성 재고, 셋째, 철저한 매출관리, 넷째, 우수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다섯째, 팀제의 활성화, 여섯째, 유통력의 강화, 일곱째, 자기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 및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통상이슈 쟁점 '수두룩' KIEP, 양국간 심각한 입장 대립 발생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법령이 정비되더라도 통상이슈로 떠오를 쟁점들이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상품분야의 경우 제도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 분야는 협정문 해석 차이에 따른 양국간 입장 대립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월 20일 '한·미 FTA 이후의 한·미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 강구해야'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IEP는 보고서를 통해 상품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저율관세수입물량(TRQ) 관리제도, 세이프가드 발동, 위생 및 검역제도 등과 관련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관련 스냅백 조항의 요건, 의약품의 허가-특혜 연계 등도 향후 통상이슈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협정문의 해석 차이에 따른 제도 운영을 두고 양국간 입장이 대립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KIEP는 주장했다.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심사제도의 경우 '공익'의 정의와 이 제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의 설정 및 적용, 유통서비스의 대형할인점 관련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와 영업시간 제한, 금융서비스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각종 부속서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이행과정에서 양자간 통상현안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 공정이용에 근거한 일시적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 경쟁분야에 있어서 지정 독점과 공기업, 그리고 국영무역기업 등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관행과 관련해 문제 발생의 소지, 노동·환경분야에서도 간접수용 관련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KIEP는 진단했다.

KIEP는 또 한·미 FTA 협정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도 지적했다.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위생 및 검역 제도의 개선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는 거론되지 않은 것들도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육류 및 가금육 검사시스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역화 개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공산품분야에서도 관세 이외의 과도한 각종 수수료 및 벌과금, 통관과정에서의 과도한 서류요구 및 컨테이너 검색, 자동차 배출기준 및 안전기준, 의약품 관련 가격 책정 및 거래관행 등은 미국이 한·미 FTA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사항들이라고 KIEP는 강조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시장개방이 크게 제한돼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일부 서비스 시장의 추가개방을 강력히 요구해 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됐다.